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 누리과정을 통해 기대한다

우남희 소장

영유아기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그 어떤 시기보다 효과성이 높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영유아기에 주어지는 교육과 경험에서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한다면 국가 차원의 우수한 미래 인적 자원의 육성이라는 측면에서도, 한 개인의 측면에서도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개별적 환경 격차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유아기에 주어지는 보육·교육 경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가구소득, 거주 지역, 이용 기관에 따른 경험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통커리큘럼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다.

2012년 만5세 누리과정으로 시작하여 2013년 3~4세까지 확대 도입된 유치원·어린이집의 공통커리큘럼 ‘누리과정’은 이용기관에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동일한 교육·보육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생애초기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구현된 것이다.

또한 가구소득에 관계없는 동일한 비용 지원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누리과정 도입 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도 크게 증가하였다. 누리과정 도입 전인 2011년에는 3~5세 아동 중 82%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였으나, 2014년 12월 기준으로는 3~5세 아동 중 약 89.6%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3~5세 유아의 대부분이 누리과정을 경험하고 있어 누리과정이 명실상부하게 3~5세 유아를 위한 공통 커리큘럼으로 자리잡은지 3년째를 맞이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도입된 누리과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과연 우리가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며 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가? 제도 도입 후 3년 정도의 시간이 효과 검증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도 누리과정 도입을 통해 궁극적으로 기대하였던 바가 무엇인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누리과정은 비용 지원과 함께 도입되었기에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가구 부담 경감 효과가 직접적으로 기대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누리과정 도입 이후 수행하였던 연구에서 꾸준히 긍정적 효과를 검증하여 왔다. 이러한 가구 경제 부담 경감은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간접 효과를 내포한다.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더욱 알고 싶은 것은 ‘유치원·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들의 발달과 성장에 단기적으로라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느냐’ 일 것이다. 유아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으로 대별되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육 활동에서의 경험의 질에 격차가 줄어들었는지? 누리과정을 경험한 유아들의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가 감지되었는지? 우리의 관심은 궁극적으로 누리과정의 수혜 당사자인 아동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2012년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개발을 시작으로 누리과정의 직접 수혜자인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잘 적용되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여 왔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결과는 누리과정이 충실히 수행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치원 내의 세부 설립유형에서 나타나는 질적인 차이가 상당 부분 줄어들어 영유아의 생애초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평준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아동의 영역별 발달 수준은 여전히 아동이 속한 가구의 소득 수준과 아동의 성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난 것은 누리과정이 그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사회적 배경과 성별에 따른 발달 격차를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누리과정의 경험이 아동에게 발달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음은 검증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누리과정이 기관에서 충실히 수행되었을 때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누리과정의 적용에 있어 영유아의 가족 배경과 개별적인 발달 격차를 어떻게 고려하여 개개의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도울 것인지, 그 방법과 지원의 측면에서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누리과정이 유치원·어린이집 중 어떠한 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도 동질의 경험을 제공하며, 가족 배경과 발달 격차를 뛰어 넘어 모든 영유아에게 바람직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최초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